

강진원 강진군수, 청년 딸기농가 방문 격려

성전면·강진읍 찾아...청년농 경쟁력 갖추도록 다각적 지원 올해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인력난 숨통 기대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7일 청년 농업인의 영농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성전면과 강진읍에 위치한 딸기농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강 군수는 지난 2014년 귀촌 후 부모님과 함께 성전면 0.8ha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와 육묘를 통해 연간 총 2억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김응철(35)씨와 부친을 따라 강진에 귀농 후 2022년부터 강진읍에 본인의 농장을 운영 중인 이종덕(25)씨를 연달아 만났다.

이들은 "최근 딸기 가격이 kg당 24,000원 내외로 평년 16,000원 수준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소득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비 상승과 외국인 인력수급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강 군수는 "강진군 귀농귀촌 성공사례의 대표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딸기'의 특성화를 위해 앞으로 딸기귀농사관학교나 딸기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군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24.4%를 농림축수산업

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지난해 베트남 품협현과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해, 당장 올해 농번기부터 농촌일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군은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자립기반구축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딸기 농가를 위해 양액배지 교체 지원사업(6억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사업(7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 신설을 위해, 신전면 논정마을 일대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뛰고 있다.

이밖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남도 공모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딸기 육묘 시설과 함께 상토량이 절감되는 독립형 연결 포트를 지원해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새해 신년사에서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로 면적 대비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농촌의 방치된 비닐하우스를 정비해,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 귀농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외국인 인력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베트남 품협현과 상호협약을 맺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의 최대 난제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방문 당일, 인근 딸기농장에서 수확한 딸기를 도난당한 소식을 전해 들은 강 군수는 강진읍 송전리 장전마을의 피해 농가를 즉시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고 CCTV설치 희망 농가를 수요조사하는 등 긴급 지원과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2024 물가안정 총력' 대책위원회 개최

장흥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회 제1회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 군수를 비롯해 물가 관련 기관·사회단체장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물가대책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및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자발적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의 알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경제 및 물가 관련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 등에 깊이있게 논의했다.

장흥군은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장 체감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수시로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착한가격업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미국 에너지부 해조류 양식기술 시스템 모색위해 완도군 방문

한·미 에너지부(ARPA-E)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차



완도군은 19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이 한·미 에너지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완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시스템 구축사업'은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과 블루카본 발굴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최첨단 공법의 양식기술이 투입됨에 따라 ARPA-E측이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를 찾았다.

미국 ARPA-E는 첨단 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ARPA-E의 에블린 엔 왕 원장과 미국 대사관 에너지국 케리 청 과장, 오윤열 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은 신우철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해조류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해조류 양식장과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등을 찾았다.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는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 평가를 통해 표준화 플랫폼 개발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재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에블린 엔 왕 원장은 "해조류 양식의 중심지인 완도군이 해조류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곳임을 확인했다"며 "한미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해 해조류 양식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해조류 탄소 흡수원 지정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 완료

진도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으로 진도군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2,200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진도는 철마광장의 공중화장실을 포함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절수형 위생기구 ▲LED조명·간접조명 ▲환경친화적 칸막이 ▲어린이 전용 대변기 등을 교체·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진도경찰서와 협력해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불법촬영에 대비한 안심벨, 비상벨프를 설치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 1월부터 '부모급여' 0세 아동 월 70만→100만원

해남군은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

(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 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

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처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